

광주·전남 8월 주식 거래량·대금 ↓

전반적 약세장 시가총액 1조 이상 증발

카카오뱅크·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인기

전반적인 약세장으로 인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시가총액도 1조원 이상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21년 8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지역 코스피·코스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9억5,189만주로

전월(13억3,408만주)대비 28.65%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12조5,887억원으로 전월(13조220억원)대비 3.33%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시가총액(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다. 상장종목별로 당일 종가에 상장주식 수를 곱해 산출한다)은 25조9,173억원으로 전월(27조2,165억원)보다 1조2,992억원(-

4.77%)줄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2조39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77억원(-4.70%)감소했고, 코스닥은 3조8,778억원으로 전월(4조893억원)보다 2,115억원(-5.17%)감소했다.

코스피 시가 총액 증가 종목은▲광주신세계(352억원, 11.86%)▲금호에이치티(242억원, 8.43%) ▲DSR제강(69억원,

7.82%)등이었고 ▲다이나믹디자인(-271억원, -22.48%) ▲부국철강(-250억원, -17.76%) ▲한전KPS(-2272억원, -11.84%)등은 감소했다.

코스닥은▲애니젠(419억원, 49.70%) ▲와토스코리아(16억원, 2.80%)등은 증가했으나 ▲피파이(-149억원, -22.49%) ▲금호타이어(-3791억원, -16.46%) ▲파루(-62억원, -12.50%)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은 1.99%로 전월대비 -0.11%포인트 감소했고, 거래대금 비중은 2.00%로 전월대비-0.09%포인트 감소했

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역 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기준 ▲카카오뱅크▲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 ▲크래프톤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치엘비 ▲한국비엔씨 ▲키아오게임즈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드램(DRAM)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반도체 업종 약세, 연준 조기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약세장 시현 후 파월의 잦은 미팅의 완화책 발언 및 중국 지준을 인하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 전환됐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스마트공장 재직자 교육생 모집 온·오프라인...오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정연옥, 이하 중진공)은 제2차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연수 참여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로 총 270명을 모집한다. 신청 분야는 데이터 분석, 제조 자동화, 운영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중진공은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육과 더불어 이론과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교육생 주도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연수는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이론교육(48시간)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실습교육(16시간) ▲현장 프로젝트(80시간) ▲결과 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으로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지현 기자

삼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 13일까지 접수·12월 면접

삼성이 7일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들은 이날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정기채용에 들어갔다.

삼성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10~11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한다. 이후 11~12월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CE), 무선 모바일(IM), 반도체·디스플레이(DS) 등 핵심 사업부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 부문, 삼성SDI는 배터리 소재·셀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경영지원 부문 등에서 대졸 사원을 뽑는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래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최근 취임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조현래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소통 행보’

조현래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최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콘진원 조현래 신임 원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조현래 원장은 직원들에게 전달한 취임사를 통해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이끄는 핵심기관”이라며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산업계, 지역진흥기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ESG 경영 확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챙겼다.

조현래 원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내 콘텐츠, 예술, 관광, 소통 등 전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쌓은 문화행정 전문가 출신으로 콘텐츠정책국장, 관광산업정책관, 국민소통실장, 중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우성진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 대학’ 사업 본격화

광주대 등 지역대학 6곳 MOU...교육·실습 등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6곳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 대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6곳은 유한대학교, 인천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대학교다.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대학은 소상공인에게 전자상거래, 온라인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등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수강과 실습기회를 제

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머천다이징, 국내·외 사례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제 e-커머스 사이트(네이버, 쿠팡 등)를 통한 제품판매 ▲실습교육 등을 제공하며, 최종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포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소상공인 25명, 예비창업자 15명으로 총 50명이며, 소상공

인은 지역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모집기간 및 상세사항은 각 대학(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유한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대전과 충청지역은 건양사이버대학교, 경상권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전라권은 광주대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조봉환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온라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양성시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이마트, 일렉트로맨 스마트TV 선풍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 바로가기로 실용성 높여

이마트가 영상 콘텐츠 시청에 최적화된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4k UHD QLED 스마트 TV’(사진)를 선보인다. 이번 출시한 일렉트로맨 QLED TV는 이마트와티지엔컴퍼니(TG&Co.)가공동으로 기획,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중국 TV 전문 제조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다. 주문자 생산이라는 효율적인 방식과 더불어 영상 콘텐츠 시청에 적합한 기능만을 골라낸 이 TV는 일반 프리미엄 TV보다 3~40% 가량 저렴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렉트로맨 QLED TV는 초미세반도체 입자 ‘퀀텀닷’ 소재를 사용해 밝은 것은 더욱 밝게, 어두운 것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소인 ‘색 재현율’을 기존 LED TV에 비해 약 30% 가량 향상시키는 등 화질과 색감에도 공을 들였다.

65인치(163cm)라는 대화면에 프레임리스 베젤로 높은 몰입도 구현에도 집중한 고객들로 하여금 FHD의 4배에 달하는 4K UHD 화질과 함께 즐기는 초고 화질 영상에 더욱 집중하며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마트는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확대에 따른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집콕족들을 위해 리모컨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 바로가기 버튼을 탑재하는 등 실용성도 높였다.

이외에도 TV와의 인터넷 유무선 연결을 통해 다 플랫폼의 고화질 영상 시청과 더불어 안드로이드 OS에 한해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이처럼 이마트가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QLED TV를 선보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문화 확산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머물며, 보다 더 선명한 화질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케이션은 멀리 가지 않고 집 또는 집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스테이(stay)’와 ‘베케이션(vacation)’이 합쳐진 합성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 ‘집콕족’ 증가에 따라 올해 1~8월 QLED, 올레드 등 프리미엄 TV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3% 가량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65인치 이상 크기의 프리미엄 TV 구매 비중은 작년 1~8월 62.9%에서 올해 73.6%로 10% 이상 상승했다.

한편 이마트는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QLED TV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할인 판매에 나선다. /오지현 기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특화상품 'NH샀다치고 적금'을 출시했다. /농협 제공

잔테크 상품 ‘NH샀다치고 적금’ 출시

우대금리 포함 최고 2.0%

NH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본부장이 장기)는 최근 잔테크를 응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NH샀다치고 적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원뱅크 'NH샀다치고 적금' 페이지에서 소비와 관련된 아홉가지 아이콘을 원하는 이름과 금액으로 설정하고, 소비를 잠았을 때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입금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매월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올원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2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0.6%(8월 31일 기준)에 ▲아이콘클릭 입금 횟수 150회 이상(1.2%p) ▲올원뱅크에서 적립된 올원캐디 활용(0.2%p)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샀다치고 저축하면 맥북 사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 상품 가입고객 중 아이콘클릭 입금을 1회 이상 실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에어(2명), BHC 치킨(1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0명)을 증정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저축계획에 관한 댓글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500원)을 준다. /우성진 기자

한전KDN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산업부 1호

에너지 ICT 전문기업인 한전KDN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한전KDN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산하 '1호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개인정보 대체를 위해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의 결합 필요성이 커지고, 각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

데이터 가치 창출·경제활성화 기대

결합의 경우 공적인 목적이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전KDN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인 6개 분야 27개 항목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사례는 CCTV정보, 모바일 이동정보, 카드정보 등이다. 해당 가명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전KDN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각 기관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보유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한전KDN은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 발굴과 대내외 아이디어 공모

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처리 포털시스템(https://kdcc.kdn.com)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설환옥 정보통신사업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부상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이 요구되고 있다”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